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세가지 삼매의 조건-공

“만일 공, 무상(無相), 무원(無願)의 세 가지 지혜가 삼매의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어리석은 지혜가 될 것이다. 그 경우 많은 오류와 의식에 빠질 것이다. 만일 삼매의 상태에 머문다면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일체 존재들의 실질적인 모습(眞相)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열반을 취득하기 위한 관법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이상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비불교적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세 가지 조건은 매우 관념적인 성격이 강하며, 그런 만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쉬워도 내면에서 소화시켜 자신의 행동거지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법집요송경>에 나오고 있다. “결코 오만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음식이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공(空)과 무상(無相)과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자취는 꽃기 힘들다/ 마치 하늘을 날오는 새의 자취처럼.” 이 계승에서 오온은 정신과 육체, 관념과 물

마에서는 ‘아(我)가 없는 혹은 아(我)에 속하거나 부속되는 어떤 것이 없는 것’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아(我)란 아트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 없다는 것은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며, 아트만에 속하거나 아트만에 부속되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철학에서 아트만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실재(實在) 혹은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공이다.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의 핵심교리인 무아(無我)이다. 무아의 의미와 공의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공이란 무아의 다른 표현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대승불교에선 공과 무아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다.

공을 명사화한 공성(空性sunyata)이란 말은 내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성이란 말은 열반에 대한 다른 각도의 명칭이 되며, 그 상태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진 열반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수행과 결부되면 ‘들고 없이 순수하며, 어떤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속에 특별한 관념을 남기지 않고 마음을 비워두는 것을 지칭한다.

관법수행에 공·무상·무집착 필수 고원한 정신상태서 새 지혜 체득

집을 의미하는 말이다. 음식이란 수행이며, 수행의 조건은 바로 공, 무상, 무집착(無願)이어야 하며, 그렇기에 그들의 자취를 범인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오만에 집착하지 않고, 공과 무상, 그리고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세계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된다. 슬픔을 슬픔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고원한 정신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만한 대상에 얽혀 사는 사람들의 정신상태, 사물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의식의 흐름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 정신적인 평정과 고요함을 얻게 만드는 조건이 바로 세 가지 삼매의 조건인 것이다. 만일 명상이나 참선 혹은 기타의 수련을 통해 어떠한 정신적 경지를 체득했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삼매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불교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우선 공(空)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이란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그런 점에서 부파불교의 이바다르

공이나 공성을 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공이란 개념을 사물에 적용시키거나 존재론적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원초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것은 지성적인 탐구나 존재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논리적 도구 내지는 철학적 탐구의 수단이나 기 때문이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란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종교적 차원에서 공이란 용어는 구제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웅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구제의 과정에서 공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실천적인 의미로 지나는 공에 대한 명상은 우리들을 빈민케 하는 무지를 제거하고, 우리가 오욕으로 물든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명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며, 영기적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에 너를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곧 나의 파괴요 나의 죽음임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실천인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 캄보디아 지원단이 캄보디아 제1종정 템퐁 스님을 친견하러 간 날은 방문 3일째인 10월 1일. 30도 이상 올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정신적 지도자를 친견한다는 사실에 지원단은 약간의 흥분감에 들떠 있었다. 불교 국가의 승왕(僧王)을 친견하기 위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템퐁 스님 주석처 우님롬 사원에 도착했다.

템퐁 캄보디아 제1종정 친견기

사원 법당에 들어선 지원단은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 다음 조용히 좌정하며 스님을 기다렸다. 잠시 후 두 명의 시자 스님을 대동하고 템퐁 스님이 들어왔다. 부처님 앞에 좌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님은 부처님 오른쪽으로 비켜 앉았다. 지원단이 예를 올리지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합장으로 답했다.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템퐁 스님의 위치는 국왕 추대권이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또 국민들의 정신적 사표로 스님의 친서는 국왕의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의 첫인상은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상 좋은 촌로(村老)의 모습과 비슷했다.

템퐁 스님이 먼저 말씀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스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국가는 다르지만 하나의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부처님의 형제입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뜻입니다. 굳건하고 강하게 하나의 불심으로 등쳐서 양국간 우의가 더욱 강화됐으면 합니다. 같은 형제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불교와 한국 불교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스님은 이어 캄보디아 불교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제국 이후부터 불교 국가를 유지해왔습니다. 1979년



◁크고 맑은 눈, 웃을때는 어린이의 그처럼 맑게 표정짓는 템퐁스님은 인상 좋은 촌로의 모습이었다.

뒤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과 학교, 수도시설 등 제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도 프로젝트 시행에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의 왕사·승왕 병원·학교건설 등 빌리지 프로젝트 주관

템퐁스님

폴 포트 정권 때 잠시 침체되기도 했지만 다시 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79년 이후 파괴됐던 사원을 복구해 현재 전국에 4천여 개의 사원에 5만여 명의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전국적으로 불교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불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스님들을 교육시킬 공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건립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1978년 캄보디아 승가 최고회의 원토회의 의장으로 추대된 템퐁 스님은 내전 종결 후 불교 부흥과 국가 재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빈민 구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스님은 빌리지 프로젝트(Village Project)라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도 하다.

150~200여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원 하나를 건립한



◁템퐁 스님과 시자스님 2명이 부처님 오른쪽으로 비켜 앉아 있다.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인성취처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회귀 금강염주 이곳을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품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격고정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입양 고민하고 계신 분, 연봉을 원거리로 받고 계신 분, 담배를 고단하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생을 하고 계신 분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 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힘이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 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소인성취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 하실때마다 꼭 개뿔하여 하여 사물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3주의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即日일 공휴일 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문 영험을 받으시려면 유력한 용기소로 전국 어디나 현지 판매처를 하고 사후상담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용마루 관동동 177 대영 BL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는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 그리고 강한 흡착 및 삼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불어를 넣으면 불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활택하며 쪼여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불어는 10분 내로 원형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배 계속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지맥,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거나 기미가 없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길게 숙면을 하며 꿈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지푸런하고 목이 뻣근하며 어깨가 움직이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개운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입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배계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회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배계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행생, 수승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배계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을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되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하면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 처럼 사용하시고 7일만 사용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증, 찬 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 의해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가격은 60,0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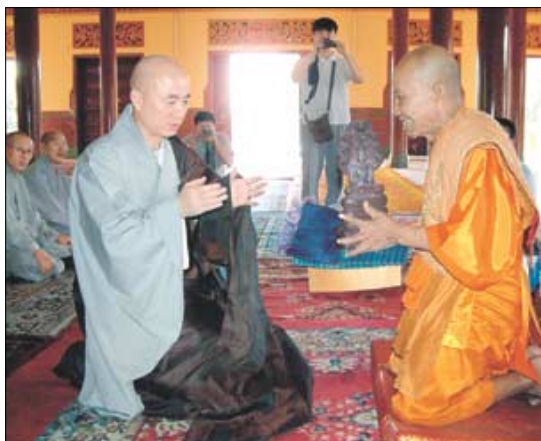
문의전화는 (02)722-2890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누우

우린 법형제”

알려졌다.

“불교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말씀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복(五福 즉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오래 사는 것(壽), 세상에 큰 부자가 되어 재물과 보배가 많은 것(富), 사람이 단정하게 잘 생기는 것(단정함 모습), 명예가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것(명예), 정신이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것(지혜) 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닫기 지녀 계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시하고, 참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국가가 칭찬하고 따른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과 폭력, 환경 파괴와 물질만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모든 문제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때 행복

“불법 따르면 전쟁·오염 사라지고 인류 함께 행복해지는 길 열려”



◊템퐁스님이 지원단 전원에게 손수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성관스님이 선물을 받고있다.



◊템퐁스님과 기념촬영. 왼쪽부터 도운·일문·성관·지선·장적·토진스님.

복해질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160센티미터 뿔까 말까한 자그마한 체구에 크고 맑은 눈. 웃을 때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는 템퐁 스님은 지원단 일행 전원에게 손수 기념품을 전해줄 정도로 자상함을 보였다.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국왕의 왕사(師)이자 승왕(僧王)이지만 권위적인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외부 유명 인사들이 친견하러 오더라도 말씀이 거의 없다는 템퐁 스님. 각 지방에서 지원단체를 논의해 오기 때문에 틈틈이 해당 지역으로 달려가는 템퐁 스님. 지원단의 친견 장면을 지켜본 한 사람은 평소 목언을 생활화해 온 큰스님이 이례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원단이 우남통 사원을 둘러보는 동안 템퐁 스님은 태극기를 방문하기 위해 사원을 떠나고 있었다. 부축을 받으며 사원 계단을 내려오는 스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과 불교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신적 사표(師表)가 되기에 충분함을 얻을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사자후를 토하기 보다는 낮은 곳에서 조용히 실천하는 스님은 실천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캄보디아=남동우 기자

국민 90% 이상이 불자인 캄보디아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다. 상좌부 불교를 전통으로 하는 캄보디아에서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초 부남 왕조의 범민왕 시대부터. 5세기 카운디아 왕조 때는 인근 국가에서 서로 초빙하려고 했다는 승가바라(460-524)와 같은 고승을 배출하기도 했으며, 9세기 앙코르 제국 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거론되는 앙코르 와트(사원)를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6년 폴 포트 정권이 집권한 후 불교 탄압이 시작됐다. 집권 3년 8개월 동안 3천6백 개의 사찰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한 때 6만여 명에 달하던 스님 대부분이 박해받거나 살해당

불교가 국교...국민 90%이상이 불자 폴 포트정권때 사찰 3,600여곳 파손 한국인 500여명 거주...80%가 개신교 선교활동

▶ 캄보디아 불교 현황

했다. 1979년 정권 붕괴 후 승측에 남아 있던 스님 숫자가 3천여 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그러나 민중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템퐁 스님의 말처럼 현재 4천여 개의 사찰에서 5만여 명의 스님

들이 불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한국 개신교의 캄보디아 선교 활동.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5백여 명의 한국인들 중 70-80%가 선교 활동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단과 캄보디아에 같이 도착한 사

람들 중에서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무리의 개신교 신자들이 목격됐다. 또 지원단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30-40여 명의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 전 '아멘'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교국가 캄보디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방문이 이 나라 불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명준스님

스님이라면 누구나 초심시절의 새벽예불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창불 하는 스님의 선창에 따라 호흡을 고르고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한 구절 한 구절 입으로가 아닌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 예불 소리에 코끝이 시큰해지고 목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 기억 말이다. 초심시절 부처님 도량에 사는 환희심도 있었지만 모르고 부딪쳐야 했던 일들에 대한 고답품을 예불시간에 다 녹여내며 신심을 다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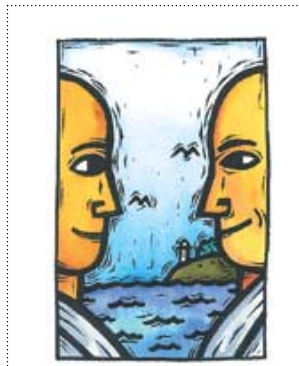
나는 명준 스님을 생각하면 모습보다는 먼저 그 목소리가 떠오른다. 부산 영도. 넓은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화사에서 지리포교에 애쓰고 있는 스님이다. 열여섯에 출가해서 운문사 강원과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제방선원을 거쳐 지금은 포교에 힘쓰고 있다. 아마 내가 확인시킬 이였을 것이다. 졸업한 선배스님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의식을 집전

는 원이 담긴 축원이다. 그 대목에서 나는 나와 인연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도록 면하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 매일 입으로 외우는 축원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윽한 열불성을 가진 명준스님은 소리로서 고단한 중생의 번뇌를 쉬게 하고, 잠시나마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주는 해탈보살이 되어 주는 스님이다. 부처님처럼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기는 그리 쉽지 않지만 누구나 한 가지 선지식의 종자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미 가진 그 선지식의 종자를 현실하게 밟아시키고 잘 키워서 또 다른 인연에 그 종자를 나누는 일이 또 하나의 수행이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명준스님의 열불소리는 인연된 사람들의 가슴에서 일파 만파 선의 씨앗이 되어 퍼져갈 것이다. 근심을 내려놓고 한 회심을 낼 수 있는 씨앗이 되고, 화를 삭여서 미소를 품을 수 있는 씨앗이 되며 육신과 번뇌를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씨앗 말이다.

포대화상 같이 넉넉한 모습에 가슴은 수줍은 듯 씨익 웃는 스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물론 수행자로서 잘못된 행동 앞에서는 엄격하지만 후배들이나 불자들에게 내주는 품은



그림·문병성

하는 소리를 나는 멀리서 듣게 되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했던 나는 도대체 저 그윽하면서도 깊고 힘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날 이후 나도 열불을 하거나 특경을 할 때면 은근히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흥내를 내곤 했다. 그러나 소리에도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있다.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재주는 노력해서 될지 모르나 소리의 음색이나 음량, 음질은 노력해서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명준 스님의 목소리의 음량과 음질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것 같았다. 무엇보다 스님의 열불하는 목소리는 기도하는 법당이나 행사장의 분위기를 그윽하게 하고, 그 열불소리는 마음 깊은 곳의 세계로 인도한다.

스님들은 새벽예불 시간에 칠정례를 올리고 행선축원을 한다. 그 축원 내용이 "聞我名者 免三途 見我形者 得解脫"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의 괴로움을 여의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되길 바라

그윽한 열불소리 중생의 번뇌 녹여

“최선 다할때 가장 아름답다” 늘 강조

넉넉하다. 후배들에게 늘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곤 한다.

한번은 내 손을 꼬옥 잡고 소망하게 말했다. "진명스님, 우리 잘 삼시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한 것이 또 다른 수행의 길입니다"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스님이 방송을 회향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요"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당부했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스님이 한 말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그렇게 하면서 "스님같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후배가 있음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선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큰 경책의 말이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존재하는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소임에 충실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좌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명준스님은 그렇게 사는 분이다. 바다가 작은 강물을 다 품듯, 넓은 부산 앞바다의 주인이 되어 서 말이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눈스님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성지순례

- 일 시 :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 출발장소 : 강변역·모란시장·곤지암
- 목적지 : 대구 팔공산 깃바위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04주년 탄신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지장보살후불탱화 점안법회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